

2017년 봄 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
요한의 보수하는 사역

메시지 2

육체되심, 구속, 재생산

성경: 요 1:14, 29, 3:14, 12:23-24

I. “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,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.” — 요 1:14.

- A. 하나님이신 말씀(요 1:1)께서 육체가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생명과 인간 본성을 갖기 위함이었다.
- B.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을 때 죄의 육체의 모양이 되셨지만 육체 안에 죄는 갖지 않으셨다 — 롬 8:3.
- C. 하나님이셨던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다는 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을 가지신 육체의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— 딤후 3:16, 골 2:9.
 - 1.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죄 있는 사람과 하나 되셨다. 그러나 그분께서는 죄 있는 사람의 모양만 있으셨을 뿐 죄는 없으셨다 — 롬 8:3.
 - 2.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-사람, 곧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온전하신 사람으로서 두 본성, 곧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소유하셨다 — 눅 1:35.
 - a. 그 두 본성이 연합되어 하나님-사람을 산출했지만, 그 두 본성의 개별적인 특성은 여전히 구별되며, 그 두 본성이 혼합되어 제삼의 본성을 산출하지 않았다.
 - b. 신성한 본성이 사람의 본성 안에 있었고 사람의 본성을 통하여 표현되었는데, 여기에 은혜(사람이 누린 하나님)와 실재(사람이 얻은 하나님)가 충만하였다 — 요 1:14.
 - c.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표현되심으로, 사람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을 생명으로 얻고 누릴 수 있었다 — 요 1:4, 10:10, 11:25.
- D. 요한복음의 깊은 사상은 그리스도, 즉 육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장막(요 1:14)으로 예시된 것처럼, 하나님의 체현으로 오셔서 사람이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, 하나님 안에 담긴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다.

II. “보십시오,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.” — 요 1:29.

- A. 구속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죄와 죄들을 처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다.
 - 1.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다 — 고전 15:3, 벰전 2:24, 히 9:28.
 - 2. 주님의 죽음은 인류 안으로 주입된 사탄의 독이 있는 본성인 죄를 처리하셨다 — 고후 5:21, 히 9:26.
- B.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요구들, 곧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요구들을 만족시키셨다 — 창 3:24, 롬 2:5, 히 12:29, 9:5.
- C. 하나님의 어린양은 완전한 구속의 성취를 위한 구약의 모든 제물들의 성취이신 육체 안에 계신 말씀(요 1:1, 14)을 상징한다.
 - 1. 그리스도는 모든 제물들의 총체이시다 — 히 10:5-9.

2. 모든 제물들의 성취가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신성한 생명과 본성에 참여할 수 있다 — 요 3:14-15, 벧후 1:4.
 - a.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실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— 히 10:19.
 - b.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구속을 가지고 있다.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모든 어떠한 심을 누릴 수 있다 — 요 1:14, 16-17.

III. “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같이,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.” — 요 3:14.

- A.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뱀의 형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.
- B. 주 예수님은 광야에서 모세가 들어 올린 놋 뱀의 예표(민 21:4-9)에 그분 자신을 적용하셨다.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 계셨을 때 그분이 “죄의 육체 모양”(롬 8:3)으로 계셨다는 것을 가리키며 그 모양은 놋 뱀의 모습과 동일하다.
- C. 주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높이 들어 올려지셨을 때, 옛 뱀 사탄은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처리되었다 — 히 2:14.
 1. 뱀의 형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주 예수님은 옛 뱀인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셨다 — 창 3:15.
 2. 이런 방식으로 주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를 심판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인 마귀를 멸망시키셨다 — 요 12:31, 히 2:14.
 3.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뱀의 형체로 죽으신 주 예수님께서 마귀와 그의 사탄적인 체계인 세상을 처리하셨다.

IV. “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,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.” — 요 12:24.

- A. 그리스도께서는 재생산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재생산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많은 밀알들을 산출하시기 위해 땅에 떨어져 죽으신 한 알의 밀이셨다 — 벧전 1:3, 엡 2:6.
 1.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신성한 생명을 나누어 주셨고 우리를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만드시어 그분의 재생산이 되게 하셨다 — 요 1:12-13.
 2. 주님께서 땅에 떨어져 죽으신 후에 그분은 부활 안에서 자라나셔서 그분의 재생산이자 그분의 번성인 많은 밀알들을 산출하셨다.
- B.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재생산은 그분의 확산이다 — 요 12:24.
 1.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은 번성하고 확산되어 왔다 — 요 1:1-13, 롬 8:29.
 2. 이 확산은 교회의 산출을 위한 것이다.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은 그분의 재생산인 교회를 산출하셨다 — 마 16:18.
- C.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재생산은 주님의 영광스럽게 되심이기도 하다. 주 예수님은 그분의 몸의 건축을 위한 많은 밀알들을 산출하심으로 영광스럽게 되셨다 — 요 12:23, 엡 1:20-23, 4:16.